

“학교 역사교육은 F학점이다”



《한국사 오디세이》 김정환 지음/바다출판사/전2권 상 604쪽, 하 592쪽/상권 25,000원, 하 30,000원



‘시인이자 전방위 예술가’로 지칭되는 김정환(48)을 본 적이 있다. 몇 년 전 그의 책에 실린 사진에서 봤고, 인터뷰하러 가기 직전 한 일간지에 실린 사진에서도 봤다. 그렇게 자주 보지만 그의 외모는 대개 같은 모습이다. 10년째 고수하고 있다는 브라운 톤의 체크무늬 남방은 김정환의 확실한 캐릭터다.

서울 아현동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김정환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반주를 걸친 후였다. 실제로 본 첫인상은 방금 참외밭 서리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말썽꾸러기 소년 같았다.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와 똑같이 짹짹 슬리퍼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에는 맥락이 없습니다. 중요인물이 어느 날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소설로 치면 F학점짜

리입니다.”

《한국사 오디세이》에서 그가 어떤 ‘사관’을 구현하고 싶었는가는 이로써 분명해진다. 몇 번의 질문과 답이 오고가자 김정환은 ‘기자가 책을 읽어봤으면 다 알 내용을 자꾸 물어본다’며 기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신 한국사를 보면…”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통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는 한국통사를 보면…”

“이것 참, 상상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목을 바꾼 이유도 그 때문이죠. ‘상상’이란 제목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김정환이 제멋대로 상상한 책이대’라고 생각하던데 말이죠. 이거 신화나 설화, 논문 등 엄연히 자료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네, (…) 설화랑 민담 등 역사 이외의 것을 참고했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그처럼 상상, 아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잖아요. 작업하는 데 시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설화는 신돌석이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영웅담이 나오고 설화가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철저히 문헌에 의존해야 합니다. 근데 기자 양반이 책을 읽고 오셔야죠. 저도 몇 군데 책을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남들에게 책을 소개합니까, 서로 망하는 거죠. 아이 참 내가 흥분하네.”

엔터테이너 김정환은 ‘이빨’로 먹고

사는 기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출판담당 기자만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뜻밖에 책을 다 읽지 않은 기사를 나무라는 저자의 책망에 당혹스러우면서도 달리 변명을 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 그렇다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사실 그의 ‘흥분’은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정환은 ‘술이나 얻어 마시기 위해’ 다시 짹짹 슬리퍼를 끌고 작가회의 사무실로 가버렸다. 하지만 기자는 그가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한 잔의 취기가 좀처럼 가지지 않았다. 술이 약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족처럼 《한국사 오디세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책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읽고 치울 책이 아니다. 방학 때 놀러온 아이처럼 할머니의 이야기를 며칠 사이에 다 듣겠다고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로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옆에 두고 휴식을 취하듯 두고두고 꺼내보는 것도 이 책을 끝까지 읽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